

# 전북 지방의회, 비리 온상 되나

의혹 확산...당국 수사 본격 착수  
조국당 전북도당, 강력 수사 촉구  
정당 책임 정치 도입 요구  
“비리 연루 의원 즉각 처벌해야”

수년 전부터 도내 지방의회에서 각종 이권개입, 비리, 비위행위, 해외연수, 국 내사찰 부실 형령의혹 등이 반복 제기 된 가운데 수면위로 점차 모습을 드러 내고 있다.

최근 수사당국은 전북도의회와 전주 시의회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전북 지방의회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참에 강력수사를 통한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조국당은 논평에서 “경찰은 국민권익위 수사외뢰에 따라 도내 11개 시군 지방의회를 전방위로 수사 중이다. 항 공권 이중 예약, 리베이트 수수, 경비 부풀리기 등 비리 유형은 구체적이고, 관련 의원과 직원 상당수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며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정은 지방의회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는데 이는 ‘도민의 세금’을 사적 유용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지방의회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부패가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며, 일상처럼 무감각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이제의 감각이 마비된 ‘탈기적 증상’이

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해외연수 때 자기 돈은 한 톨도 쓰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행태는, 도민 세 금에 기생하는 썩스러운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적격했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의회가 정당의 책임 정치를 외면한 채, ‘공천 = 당선’이라는 구조 속에서 지방권력을 독점해왔다는 데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년간 전북 지방의회를 사실상 장악해왔다”며 “그 결과,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실은 지방의원의 상식도, 양심도,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만들

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지방의회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정당의 공천 책임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당 내 윤리감시센 터를 상설화하고,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정당이 먼저 사과하고 징계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나아가 ‘정당 책임 명시제’와 같은 실질적 장치를 도입, 정당이 후보 공천에서부터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이번 국외연수 비리는 특정 개인 의 일탈이 아닌, 도민 세금에 기생해온

부패 시스템의 결과로 지방의회를 단순히 개혁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몰감해야 한다”며 “비리에 연루된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각 지방의회는 모든 연수비 사용 내역과 보고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를 전북 정치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 지방의원 비리를 정당이 책임지는 구조를 앞장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천 수변 정비에 “전주시, 협의 무시...과도한 훼손”

전주천 수변 식생 정비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사전 협의 무시 논란 제기  
생태보호구역 지정 촉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불발더위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달 27일 “전주시는 전주천 생태서식지 평가가 가장 높은 권역에 해당하는 한벽당과 생태박물관 일대의 수변 갈대와 물억새를 모조리 베어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주천 한벽당 구간은 전주천의 심장이다. 도시하천 상류에 해당하며, 여울과 소(깊은 웅덩이), 모래톱과 자갈톱, 달뿌리풀과 물억새, 갈대, 버드나무가 어우러져 하천의 자연성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며, 특히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 황조롱이, 살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이자 우리나라 고유종인 쉬리의 안정적인 서식처로 기능하는 생태서식지 평가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승암산 자락과 이어지고 좌안에 자투리 숲이 남아있어 한옥 마을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던 곳인데 2023년 겨울 하도 준설로 인해 많은 모래와 자갈을 파내고 갈대와 작은 나무들을 잘라내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고 이제 서서히 생태계가 자리를 잡아가려는 시기에 또다시 예초기를 돌려 그동안의 회복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또 “시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 전주

시는 지난 5월 연휴 기간에도 남천교 일대 물억새와 갈대를 자르다 시민들의 항의로 중단한 바 있는데 당시 전주시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하여 시민 편의를 위해 산책로 주변 1.5m가량만 베어내고,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두고 최소한만 자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방 사면 잡목 및 수변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명목으로 벌목과 제초 작업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6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벌목과 제초, 준설 등 비효율적 토목사업에 강행하고 있어 많은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불필요한 토목 사업에 쏟는 예산을 줄이고, 자연 기반해법에 맞는 하천관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첫째, 전주생태하천협의회 및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수변 식생 관리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충실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산책로 주변 이외의 수변 식생 모두배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천 식생의 생태적 특성과 기능, 경관을 고려한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전주천 한벽당 일대는 도심 하천 구간 중 생태적으로 가장 우수한 만큼, 보존의 개념을 우선으로 하여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 장정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추진

맞춤형 주거·생계비 지원  
피해 접수 787건 중 62% 인정  
법률비용 지원도 적극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부터 주거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전북도의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자 의견과, 7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건의한 데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으로,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으며,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기존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신탁사기로 인해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도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부 월세로 임주했으나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구속 등으로 월세 납부가 중단된 세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월세 납부 증빙이 어려워 제도권 밖에 있었지만,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 전망된다.

법률구조재단과 HUG 안심전세포털의 법률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법률비용 지원 제도의 신청 안내를 적극 홍보한다. 변호사 수임료는 최대 250만 원까지, 일반 변호사 선임 시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소급 지원된다.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도 전개한다. 임대사업자 자격기준의 명확화, 신탁채권 정보의 등기부 기재 의무화, 공공요금 체납 시 단전·단수 피해 방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검찰 송치’에서 ‘수사 개시’ 단계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8월 중 주거비 지원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통보해 종합지원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 누구나 제도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군산 2025 국가유산 야행

2025 군산국가유산 야행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2025. 8.22.(금)~8.23.(토) / 8.29.(금)~8.30.(토)  
18:00~22:00 군산 원도심 국가유산 일원

주최 군산시 후원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대형 개발 연일 ‘잡음’ 시민 신뢰 추락

종합경기장·대한방직 개발에  
해체공사 감리, 이해충돌 의혹  
드론축구협, 비자금 수사 착수  
시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적발

대전 세종 충남 이남에서 단군 이래 최대 토목 건축사업이라는 전주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개발을 앞두고 벌써 잡음이 일고 있다.

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는가하면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아직 시공사도 선정되지 못했는데 고분양가 논란이 우선 제기되는 등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드론월드컵을 앞두고 관계기관이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며 전주시의회는 해외연수 비리 수사에 이어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먼저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의 대표는 S사 부사장으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고, 감리자 선정은 무작위 원칙이 아닌 담당자 임의로 진행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용역은 지난해 7월 전주시가 해당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건축사무소와 2020년부터 시행된 전주시 관내 해체공사 감리용역비 총 최고액인 2억 4천800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다. 한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 실적도 없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 실적이 없는 신생 사무소가 어떻게 전주시 최대 규모의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공사의 감리자로 선정된 것인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대한드론축구협회 간부 비자금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캠프종합기술원, 대한드론축구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캠프종합기술원과 대한드론축구협회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한드론축구협회 관계자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비 수 천만원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는 등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는 조만간 드론축구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약재가 터진 것.

이와 함께 미국에서 열린 CES 박람회 등 수년 간 참가비용과 예산, 민간인 동행여부 등도 함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드론축구협회 협회장은 전주시장과 캠프종합기술원장이 공동으로 맡아왔다

시민 박모(53)씨는 “정말이지 요새 전라북도 뉴스를 보면 전국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전주에서 살기가 싫어져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싶은 심정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주시의회도 불미스러운 일이 연거푸 발생하고 있다.

국외연수 경비를 부풀린 시의회 직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



전주 종합경기장-대한방직 개발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은 대한방직 조감도. <사진=전주시>

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주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진행됐던 전주시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경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의원들은 조를 나눠 미국과 유럽 등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경찰은 당시 연수에 참여했던 시의원들을 확대 조사하는 한편 당시 동행한 다른 인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여행경비 지급문제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개인 주머니를 채운 전윤미 시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부당이익은 한 톨도 빠짐없이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예산을 자신의 업체 등에 몰아주기한 논란에 휩싸였는데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

인을 돕기 위해 업체가 할인을 하면 할인액 만큼을 보전하는 사업과 관련해 전 의원과 가족 등이 운영하는 특정 미용실 4곳이 지원 예산의 상당부분을 가져갔다. 전윤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진보당 지역위는 “자당 의원이 수천만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며 “전 의원에 대한 즉각적 중징계에 나서고 지자체 예산을 받은 사례가 더 없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이 수사하는 시의회의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시의회는 위유성 해외연수를 전면 폐지해야 하고 철저한 수사와 형사적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가 드러났다.

/장정철 기자



## 전북메타리더십 총동문회, ‘희망’ 교육포럼

“메마른 마음에 희망을”  
권영찬 소장 초청 강연  
메타리더십 장학금 수여

전북특별자치도메타리더십 총동문회(회장 정성기)에서는 전 개그맨이자 행복상담연구소 권영찬 소장을 초청해 “메마른 마음에 다시 피어나는 희망”이란 주제로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포럼에는 전북예향본부 윤석정 총재, 전북도변호사협회 김학수 회장,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 전안균 회장,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유장명 회장, 황호진 전 부교육감, 최형재 이사장, (사)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조진환 원장 등 지역의 리더들이 200여명 참석했다.

교육포럼에 앞서 전북자치도메타리더십 정성기 회장은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완주군 2학년 최지현 학생 등 총 18명의 학생에게 각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북자치도 메타리더십그룹 정성기 회장은 이에 대해 “지역의 리더로서 자기성장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라며 메타 리더십 장학금 수여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권영찬 교수는 “소통은 내일부터가 아닌 여기부터 지금부터 시

작되는 것이다”라며 말씀을 이어갔다.

권교수는 세 번 죽을 뻔했던 고비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불행은 끝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고, 인생지사 새움지마”라며 “누구나 개인적인 시련과 실패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찾아오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시련과 좌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두려워하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자신만의 분야를 만들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고 말했다.

권영찬 소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상암초경대학원 석사학위, 국민대학교 문화심리사회학 철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웰라이프 브랜드 카운슬링 정교수, (사)행복상담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전국에 12개 지부를 두고 있는 메타리더십 그룹은 지난 24년간 CEO, 리더들을 성장시켰다. 서울·부산·전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100여명의 교수진이 활동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메타리더십 그룹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6기 과정을 거쳐 약 320여명의 회원을 배출했고, 총 동문회에는 150여명이 활동중이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보령머드축제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유치 기원’ 홍보부스 운영  
체험행사도 관심 유도  
관광 책자·포토존 배포

전북특별자치도가 3일까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열린 제28회 보령머드축제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홍보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홍보는 전주가 보유한 문화와 관광, 스포츠 인프라를 알리고,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전주만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올림픽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 ‘2036 에어볼 잡기’ 이벤트, ▲ ‘전주 2036을 맞이하!’ 룰렛 게임 ▲ ‘전주시 관광지 스탬프 채워’ 등 가족 단위 관람객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전주 관광 책자와 올림픽 유치 홍보 전단 등의 자료도 배부하며, 부스 외 부에는 대형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전주의 매력을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까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열린 제28회 보령머드축제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홍보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사진=전북도>

접하고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적 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통해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역량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올림픽 유치 기반 확대와 국민적 관심 제고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2036하계올림픽 유치단장은 “보령머드축제처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 현장은 전주의 올림픽 유치 열기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며 지속적인 분위기 확산을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집중호우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  
하천·지하차도 출입 자제  
공사현장 등 점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시설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

도는 이 같은 기상 상황에 따라 둔치 주차장, 지하차도, 하상도로, 하천변 산책로, 계곡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사전 통제를 실시하고, 공사 현장과

배수로 등 주요 취약 지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급류 발생이 우려되는 계곡과 하천 주변에서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논물길 정비 등 농업 활동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서 갑자기 수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야영이나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출입은 피해야 한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 문



자나 재난 알람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주시, 2025 청년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 미취업 청년 대상 14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전주시는 ‘2025 청년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다. 특히 청년 취업 위한 민선 8기 전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미취업 청년 경쟁력 강화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을 통해 어학시험에 응시한 청년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1985~2006년생) 중 시험 응시일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년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 보유자는 제외되며,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응시한 19종의 어학시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주청년 온라인 플랫폼인 전주청정지대 온라인 접수를 활용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 △어학시험 응시확인서 △어학시험 결제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오는 9월 초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역량 강화와 자기계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전주시의회는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이 지



난 1일 가결됐다.

이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환경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월드뮤직’ 향연

### 13일~17일 다양한 공연 전통·현대 어울린 세계 음악

전 세계 다양한 장르의 소리 향연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8월 시원한 문화바캉스 즐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가 ‘본향의 메아리(echoes from the homeland)’ 키워드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다양한 장르·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소리축제는 국내·외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뿌리의 음악을 기반으로 세계 음악들을 선보여왔다.

올해 소리축제에는 스페인·브라질·사이프러스·일본 등 다양한 해외 팀들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각 나라 음악이 향연한다.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스페인 포커스’ 기획으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장르의 음악부터 스페인 출신의 아티스트 연주까지 3개 팀을 통해 스페인을



세계소리축제 스페인포커스 때아프로레알

<사진=전주세계소리축제>

깊이 있게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8월 14일 오후 1시 30분 완주 아원에서 펼쳐지는 ‘리나 푸르 보네토·홍승아·아렌트 흐로스펠트’ 공연은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을 아우르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다.

8월 15일 오후 8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서 펼쳐지는 ‘비구엘라’의 민속음악 공연은 30여 년간 스페인 민속음악의 정수를 지켜온 그룹 비구엘라가 선사하는 전통음악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무대다.

8월 17일 오후 4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는 ‘때아프로레알

의 플라멩코’ 공연은 스페인 공연 및 음악 분야를 대표하는 선도 기관 ‘때아프로레알(마드리드 왕립 오페라)’가 무대에 오른다.

소리축제와 (재)월드뮤직센터는 올해 ‘아시아월드뮤직어워드’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8월 16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겨장 미야타 마유미의 쇼(絃)’ 공연이 이어진다.

8월 17일 오후 6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서는 ‘일본’ 사부시 치리멘타이코가 펼쳐진다.

8월 16일 19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서는 사이프러스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 색채로 재해석한 ‘사이프러스’ 무슈 두마니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8월 17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서 펼쳐지는 ‘브라질’ 비시가 70 공연은 펠크, 재즈, 아프로비트, 삼바 등 전통과 리듬이 한데 섞여, 복잡하면서도 쉽게 따라 부르고 춤추기 좋은 멜로디의 음악으로 흥과 신명을 더해준다.

/김영태 기자

## 전북대병원, 암 생존자 대상 이차암 예방 의료비 지원

### 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QR코드·전북대병원서 신청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지역 암 생존자 대상으로 이차암 예방 및 건강관리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건강관리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은 이날 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접속 후 참가신

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전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전북대병원 사회복지후원회 후원금으로 진행된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성인 암 생존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총 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맞춤형 진료 및 정밀 검진 비용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전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송은기 교수의 진료를 통해 개인별 질환 특성에 맞춘 암종별

진료 및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암생존자는 주요 치료 종료 이후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암생존자 이차암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 송은기 교수는 “많은 암 생존자들이 치료 후에도 불안 속에서 생활하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

에 정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꼭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암 치료 이후에도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이차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의료취약계층 암 생존자들에게 실질적인 건강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청, ‘관계성범죄 총력대응’ 실무회의 개최

### 김철문 청장 주재 피해자보호 강화 주력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회의는 김철문 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최근 관계성 범죄에 따른 강력범죄화한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관계성 범죄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분리할 수



있는 조치 적극 실시 △교제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 가정폭력·스토커처벌법 적용 적극 검토 △고위험가해자에 대한 부서장 주관 위험도 재평가 및 안전조치 강화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철문 전북청장은 “가해자 중심의 접근뿐 아니라 피해자 중심 예방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분리수거함 ‘위치정보’ 공개

누리집 생활테마맵 활용

전주시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위치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위치 정보는 시청 누리집(jeonju.go.kr) 내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의 생활테마맵을 활용하면 된다. 시민 편의 증진과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전주시 34개 동 463개 위치하고 있다.

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분리수거대의 주소와 GPS 좌표를 정밀조사했다.

정밀 조사와 실제 분리수거대 위치 사이에 오류를 없애기 위해 시청 청소지원과 직원들이 분리수거대 위치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 홈페이지 공개를 추진했다.

진했다.

시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리배출 실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분리수거함을 조사하며 분리배출 4원칙(물기 제거·내용물 비우기·이물질 제거·분리 포장)을 강조, 분리배출 홍보 현수막 수거대에 부착하며 시민 자발 참여를 유도했다.

시는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병행하며 △정원산업박람회 현장 홍보 부스 운영 △전주한옥마을 분리수거함 정비 △공병수집·반환소 설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주요 지점 전광판을 통한 분리배출 영상 홍보 등을 추진하며 시민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하반기 직무연찬

상반기 총 13억7600만원 발굴

전주시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2025년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하반기 직무연찬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직무연찬은 업무 유형별(부동산·차량·감면·사업장)로 4일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담당자 간 실무 역량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 최근 쟁점 분석 등 세원발굴 성과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각종 사례 중심의 심화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3개반 5개팀으로 이뤄진 시·구 합동 조사단을 운영해 지방세 누락 및 탈루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했다. 결과로 시는, 상반기 동안

총 13억7600만원의 지방세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사 유형별로는 △법인 정기조사 2억1100만원 △감면 부동산 조사 4억 9700만원 △사레별 조사 1억5300만원 △기획 조사 5억1500만원 세원을 발굴했다.

조사단은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대상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운영 및 취약분야·누락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세원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은나·누락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구조영상 국민관심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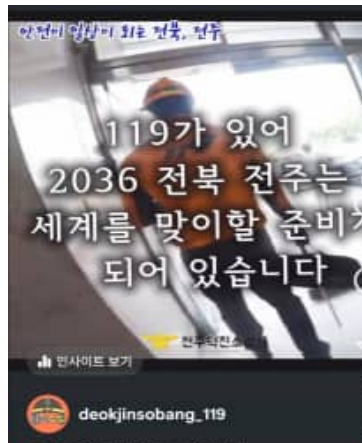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 구조바디캠 시리즈 영상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조회수 8700여회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방에 갇힌 3살 아이 구조 △승강기에 끼인 5세 아동 구조 △교통사고로 차량에 갇힌 여성 구조 등 실제 구조 현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주덕진소방서 영상 시리즈는 ‘2036 하계올림픽 향한 첫걸음’으로 제작됐다. 특히 구조영상은 구조대원이 구조시 직접 착용한 바디캠을 통해 촬영됐으며 자전거 손잡이에 끼여 엘리베이터에 갇힌 5세 아이를 구조한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도 침착하게 구조하는 모습에 신뢰가 간다”, “이런 도시라면 올림픽도 안심하고 치를 수 있겠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전주의 안전도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부각됐다.

차량에 갇힌 여성을 구조하는 영상은 AI 기반 보조 영상을 함께 구성해 구조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실제 장면과 AI 영상이 조화를 이루며, 기술과 현장의 융합이라는 새로



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구조기록이 아니라, ‘안전한 도시 전북’의 비전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상징적 콘텐츠다.

영상 속 ‘119의 일상’은 곧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북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2036 하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전북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김상순 대응예방과장은 “국민이 안전을 체감하도록 기획된 콘텐츠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안전역량을 널리 알리는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유)삼신기업, 전북 시공능력평가 ‘1위’ 차지

## 2025년도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내년 7월 31일까지 효력

2025년도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공시됐다.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시공  
능력평가액 산정결과 (유)삼신기업이 1

위를 차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임근홍)는 지난달 31일 도내 3332  
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2025년도 시  
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  
액 1위는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694  
억4884만원)이 차지했다.

2위는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범중)  
의 철강구조물공사업(602억9911만원)  
이 차지했으며, 3위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556억  
4303만원), 4위 (주)준건설(대표 한상  
남)의 지방조성·포장공사업(496억277  
만원), 5위 토성토건(주)(대표 김경중)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3억860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  
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  
해 나타난 지표로서 공사실적평가액, 경  
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그리고 신인  
도평가액으로 이뤄져 있으며, 금번 공시  
된 2025년 시공능력평가는 8월 1일부터  
관련 제증명 발급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가 가능하며 내년 7월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김은지 기자

# 전기안전공사, 경주 APEC 정상회의 업무협약 체결

## 전력 공급·전기설비 안전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  
난달 30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경  
주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2025년 경  
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  
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 공급과 전기설비 안전확  
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  
축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추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  
제부지사,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정치  
교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배계섭 한국전  
기안전공사 안전이사가 참석해 협약서

에 서명하고,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공  
동 의지를 다졌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미 경주, 제주, 인천  
에서 개최된 고위관리회의(SOM) 주요  
회의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경주 지역 정상 숙소는 두 차례  
에 걸쳐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사장, 만찬장,  
숙소 등 APEC 관련 주요 시설 전반에  
대해 정밀한 전기설비 점검과 안전 서  
비스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전기안전공사  
경주지사에 '전기안전대책본부'를 설치  
해 경주시 일원 주요 시설에 대해 24시  
간 비상출동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현  
장 대응과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APEC 정  
상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30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농촌진흥청, ‘폭염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 만전

## 총 60개 시범사업농가 8월 말까지 보급 예정

농촌진흥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에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고온 스트  
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일 경  
기도 화성시 양감면 한우 농가를 방문  
해 폭염 대응 시범 사업인 ‘우사 에어제  
트넷 및 축벽배기팬 설치’ 현장 적용 상  
황과 효과를 점검했다.  
이 장비는 축사 상층부에 모인 더운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고, 축벽에 추가  
설치된 배기팬을 통해 내부 공기를 빠  
르게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여름철 가동하면, 우사 온도가 1.9도  
(℃), 습도는 4% 정도 떨어지고, 암모니  
아 농도 역시 3.3ppm 낮아져 축사 내 환  
경개선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약취 문제 등  
을 해결할 수 있어 고온기 일당 증체량  
이 증가(0.87→ 0.90kg/두)하는 등 축산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 60  
농가를 우사 에어제트넷 및 축벽배기팬  
설치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해 현재 49  
개 농가에 보급했다. 8월 말까지 나머지  
11개 농가에도 보급 완료할 예정이다.  
권 청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폭염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가축사육기상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  
부했다.  
이용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매일  
지역별 가축(한우, 젖소, 돼지, 닭 등) 더  
위지수(THI)를 실시간 제공받아 여름철  
가축 관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권 청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발간해  
자 대응과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안내하며, 농  
장 내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철



농촌진흥청은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주산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상담을 추진한다.

저한 안전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축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기

술 보급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  
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  
요를 수렴해 폭염 피해 최소화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전북농협-정읍원에 농협, 소비자 체험행사 성료

## 옥수수 수확 체험 생산자 교감도농 교류 확대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과 정읍  
원에농협(조합장 이대건)은 지난달 31일  
정읍원에농협 인근 소재 체험장에서 소  
비자대상 로컬푸드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농상생 체험공간조성사  
업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농산물  
을 수확하며 지역농업의 현장을 체험하  
고 생산자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  
다.  
행사에는 이정환 본부장(전북농협), 이  
대건 조합장(정읍원에농협), 박 일 의장  
(정읍시의회) 및 의원, 김순기 지부장  
(농협정읍시지부), 이성진 센터장(정읍  
권역보존센터), 허철원 회장(정읍원협  
로컬푸드생산자협의회)을 비롯한 협의  
회 위원 10명, 소비자 20여명 등 40여명  
이 참석했으며 수확한 농산물은 일부  
현장에서 시식하고 지역사회에 기부 될  
예정이다.



전북농협과 정읍원에농협은 지난달 31일 정읍원에농협 인근 소재 체험장에서 소비자대상 로컬 푸드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대건 조합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  
구하고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  
사드리며, 오늘 수확의 기쁨과 나눔의 의  
미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  
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소비자와 생산

자가 함께하는 이 같은 자리가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나누고, 지역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사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기흥농협, 왕궁농협에 ‘상생자금’ 5억원 지원

전북농협(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지  
난 1일 관내 왕궁농협의 경제사업 활  
성과 지원의 일환으로 경기 기흥농협  
과 상호협력에 다지며 ‘상생자금’ 전  
달식을 가졌다.  
기흥농협은 왕궁농협과 상호협력  
동반 성장 다짐의 일환으로 상생자금  
5억원을 지원했으며, 왕궁농협은 지  
원받은 자금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활  
성화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환 전북본부장은 “도시농협인  
기흥농협이 지원한 상생자금은 도시-  
농촌 농협의 균형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현대, 8일 ‘FRUITS FRIDAY’ 이벤트

### 과일 테마 이벤트·굿즈 마련 음악·패션·먹거리 아우러져

전북현대모터스가 오는 8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안양  
과의 K리그1 평일 홈경기를 대상으  
로 K리그 최초 ‘과일’을 테마로 이  
벤트를 기획해 ‘FRUITS FRIDAY’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FRUITS FRIDAY’는 여름철 대표  
과일을 모티브로 기획한 여름 테마  
형 홈경기로 경기장 안팎에서 다양  
한 이벤트와 굿즈가 함께 마련된다.  
선수단은 이날 경기에서 지난 7월  
23일 강원전에서 첫선을 보인 라임  
스페셜 유니폼을 착용해 청량하고  
감각적인 여름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북현대에는 아티스트 박재범의 프  
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인 ‘원소  
주(WON SOJU)’와 협업해 박재범  
본인과 선수단 사인이 디자인된 ‘원  
하이볼(유자·새 향)’ 스페셜 에디션  
을 선보인다.  
협업 제품은 오늘부터 무신사에서  
단독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CU편의점과 원소주 자사몰 등 판매  
처를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이번 협업을 기념하기 위해 아티  
스트 박재범의 신곡 ‘Remedy’를 비  
롯한 대표곡들을 경기 2시간 전부  
터 장내에 들려줄 예정이며 하프타  
임에는 스페셜 공연을 마련해 전주

성을 찾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  
을 선사한다.  
전북현대 파트너이자 박재범이 글  
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아디다  
스에서는 이날 경기의 분위기를 더  
욱 자아내기 위해 의류 및 신발 등  
을 후원해 팬들에게 경품으로 선물  
한다.  
이와 함께 북전주 하나로마트에서  
도 복숭아를 협찬할 예정이며 푸드  
트럭에서는 복숭아 크레페를 특별  
판매해 과일 테마에 맞는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동측 광장에서는 전북현대 파트너  
지지체인 고창군이 마련한 복분자  
음료를 팬들에게 제공하며, 코리아  
세븐은 수박바, 아이스크림 1,000개  
를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FRUITS FRIDAY’를 기념해 8월  
4일부터 무신사에서 ‘수박 에디션  
저지’를 한정 판매하며, 경기 당일에는  
초록이네에서 특별 MD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8월 8일은 ‘포도데이’로 불리는 날  
로, 숫자 ‘8’이 포도의 송이처럼 생긴  
데서 유래했다.  
마침 이날 상대인 FC안양의 팀 컬러가  
포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전북의 라임과 안양의 포도가 대비  
를 이뤄 경기장 전체에 특별한 테마  
분위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장정철 기자

| 2025년 전북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              |                     |
|--------------------------|--------------|---------------------|
| 순위                       | 상 호          | 시공능력평가액<br>(단위: 천원) |
| 1                        | (주)디엔아이코퍼레이션 | 40,763,891          |
| 2                        | 푸른전력(유)      | 33,908,195          |
| 3                        | (주)현대에너지     | 33,643,565          |
| 4                        | 동양계전(주)      | 27,883,503          |
| 5                        | 주식회사 유진솔라    | 26,519,178          |
| 6                        | 해남기업 주식회사    | 23,626,242          |
| 7                        | 오씨아이파워 주식회사  | 22,472,654          |
| 8                        | (주)도원        | 20,024,498          |
| 9                        | 주식회사 건국      | 19,686,386          |
| 10                       | 상명이앤씨 주식회사   | 19,572,342          |

## 전북도,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소폭 증가

###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이재수)는 지난달 31일 2025년도  
전기공사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했다  
고 오늘 밝혔다.  
2025년도 전북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업체는 전년도에 이어 1위 (씨디엔아이  
코퍼레이션 407억원, 2위 푸른전력(유)  
339억원, 3위 (주)현대에너지 336억으  
로 동일하나, 시공능력평가액은 지난해  
보다 모두 감소했다.

이재수 회장은“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기공사 실적이 소폭이  
나마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2036 하계올림픽 전주유치 등 에  
너지 산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쓰  
겠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공시는 매년 발주자가  
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  
는 자료로 전기공사업계의 신뢰도와 경  
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김은지 기자

## 농촌진흥청, 사과 농가 대상 현장 기술 컨설팅

농촌진흥청은 사과 수급 안정을 위  
해 10월 중순까지 주산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상담(컨설팅)을 추  
진한다.  
이번 기술 상담은 잦은 기상 이변으  
로 인한 사과 수급 불안 요인을 미리 차  
단하고, 농가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과연구센터  
전문 인력 10명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꾸려 산불·우박·저온 피해 지역을 포함  
한 주요 사과 생산지 50개 시군에서 폭  
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와 탄저병 등  
병해충 대응 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여름철 사과 농가에서는 물 주기(관  
수)와 함께 집중호우 시기 물 빠짐 관리  
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고온이 계속될 때 나무에 수분 공급  
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열매 생장이  
나빠지고 햇볕 데임 피해가 증가하  
는 등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토양 수분 상태를 점검해 아

침이나 해가 진 뒤 물을 충분히 공급한  
다.  
반대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 과수원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토양 내 산소  
부족으로 뿌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육이 멈추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점차 심해질 수 있다.  
현장기술지원단은 이번 상담 과정에  
서 농가 건의 사항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해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에 반영  
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  
과연구센터 이동혁 센터장은 “기상 이  
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과 생  
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가에서도 철저한 대비와 상담  
참여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 바  
란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 ‘익산 교사 SNS 성희롱 사건’ 늦장 보고 공개 질타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  
책임 떠넘기기 등 10개 사항  
공개 질의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이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중대사안 보고 지연과 책임 떠넘기기 등 10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익산교육장과 교권담당 장학

사에게 공개적으로 10가지를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지난 6월 25일 학부모 성추행 사건과 DM을 통한 성기 사진 전송 및 성희롱 사건을 익산교육지원청에 중대사안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왜 곧바로 하지 않고 늦장 보고(7월 8일 보고)”를 했는지 물었다.

또 익산교육지원청의 중등 사안은 A와 B소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두 가지 성 사안에 대해 담당 장학사는 “서

로 다른 소위원회가 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두 사건을 다른 소위원회가 한 게 확실한 것”인지 되물었다.

이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2년 전 성추행 사건의 학교 상담 기록을 왜 언론에 알려는지? 또 익산교육장은 피해교사에게 언론 무대응 각서를 왜 받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한편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이번 사건에 대해 “학부모가 교원을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라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위 변호사 중 한명에게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없는지”물었다.

이어 “언론화가 돼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2년 전 성추행 사건의 학교 상담 기록을 왜 언론에 알려는지? 또 익산교육장은 피해교사에게 언론 무대응 각서를 왜 받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한편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이번 사건에 대해 “학부모가 교원을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라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새참교육 “서거석 전 교육감 비리 의혹, 철저히 밝혀라”

장례식장 조기 계약 등  
예산 집행 감사 촉구

교육연대가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이하 새참교육)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유

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서거석 전 교육감 재임 시기의 실패를 청산하고 전북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치를 요청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참교육은 서거석 전 교육감은 전북도민 앞에 사죄하라며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뿐 아니라, 피해자를 매수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심 어린 사과 업시 피해자인 척하며 교육청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또 “서 교육감 재임 시기의 청렴도는 후퇴했다”며 “장례식장 조기 계약,

‘스마트기기 보급’ 등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유 권한대행은 이를 외면한 채 정책 계승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거석 시기 모든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전북도의회와 감사원은 감사 확대 및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기전대, ‘제2회 총장배 기승전결 대회’ 성료

청소년48개팀 참가  
심사위원 자소등불거리제공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전주 청소년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2일 개최한 ‘제2회 전주기전대학 총장배 전북 청소년 댄스·스포츠 경연대회(이하 기승전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기승전결 대회는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의 장으로, 오전에는 40개 팀이 참가한 E스포츠 경연대회가, 오후에는 8개 팀이 열린 무대를 선보인 댄스 경연대회가 각각 진행됐다.

오프닝은 난타팀 ‘누리단’과 키즈댄스팀 ‘럭키’의 무대로 시작됐으며, 현재 댄서로 구성된 심사위원단(NO.1, HALO, J HO)의 저지쇼는 청소년들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또한, 철권 이벤트 게임과 애플워치 SE, 에어팟 등 풍성한 경품이 준비돼 현장을 찾은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스포츠 부문에서는 완주군 유주영 외 2명이 우수상, 풍남중 이준석 외 2명으로 구성된 Teenager Gamer팀이 준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장과 함께 60만 원, 3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댄스 부문에서는 쉐와리질라팀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노스텔지아팀이 최우수상, 네이티브팀이 우수상, 연희리팀이 인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들 팀에게는 총 400만 원 규모의 상장 및 시상금이 전달됐다.

조희천 총장은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과 열정을 무대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전주기전대학은 앞으로도 단순한 경연을 넘어, 청소년들이 꿈을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한일스포츠 교류대회 등  
체육행사 연이어 개최

3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이달에도 도내 곳곳에서 체육 행사가 예정 돼 있어 체육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뽐내게 된다.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익산시 일원에서 제29회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대회가 열린다.

양국의 학생들은 축구와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연습과 친선경기, 문화역사탐방 등의 시간을 갖는다.

또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안군 일원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교실 체험캠프가 펼쳐지는 데 요트 체험과 스포츠안전교육 등이 진행된다.

광복기념 걷기대회는 오는 15일 전주시 일원에서, 도지사배탁구대회는 16일부터 이틀간 남원에서 열린다.

도지사기 볼링대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에서 도지사배 각복심대회는 23일 정읍에서 각각 개최된다.

/장정철 기자

### 전북교육청,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 공고

12일 시행·1,173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를 지난 1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오는 12일 치러지는 이 시험은 응시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6개 권역에 시험장을 설치·운영하며, 시험장 설치 장소는 △전주기전중학교 △군산중학교 △익산여양중학교 △학산중학교 △남원하늘중학교 △진안여자중학교이다.

제2회 검정고시 최종 지원자 수는 총 1,173명으로 초졸 75명, 중졸 185명, 고졸 913명이다. 온라인으로 지원한 응시자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7시 30

분부터 8시 4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험실 내에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며, 합격자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본인이 신청한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험번호와 시험장 등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총, 체험활동 전시물 등 교육자료전 열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2일 전북교총 특별전시장에서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

을 바로 세우는 미래 학교’라는 주제로 제56회 전북교육자료전을 개최했다.

이번 제56회 교육자료전에는 유·초·중등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교육현장에서 실제 적용·활용 가능한 다양한 수업자료들을 출품했으며 창의적 체

험활동, 놀이 중심 교육, 기초학력 보장, 인성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물이 소개됐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단순한 복지단체를 넘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교원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라인-루르 하계대회 폐막...전북 출신 선수들 메달 획득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들이 선전을 펼쳤다.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전북 출신이거나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3명의 선수가 선의 경쟁을 벌였다.

이 가운데 이리중과 전북제일고 출신인 펜싱의 박정호(성남시청)는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드민턴에서는 김윤주(군산대)와 이

채은(군산대), 이해원(한국체대), 최지훈(삼성생명)이 출전한 혼성 단체전에서는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또 우석고를 나온 유도의 송우혁(하이원)도 혼성단체 경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북 선수들이 포함 된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4위를 기록했고, 차기 개최국은 한국이며 오는 2027년 충청권에서 열린다.

/장정철 기자

🔥

온열질환 주의보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습관화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 물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십니다

2 그늘

나무그늘이나 차양막등을  
활용하여 햇빛을 최대한  
차단합니다

3 휴식

충분한 휴식을 하고  
무리 하지않습니다



## 정읍시, 상생일자리사업 참여자 3개 분야·144명 모집

정읍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3단계 상생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해 생계를 돕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3개 분야에 총 144명을 선발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선발된 참여자는 공원 등의 환경미화, 기적의 놀이터 운영 관리, 공공기관 업무 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 시민 중,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 기존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이 이뤄진다.

근무조건은 만 60세 이하의 경우 주 30시간, 만 61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게 되며 4대 보험은 의무 가입된다. 급여는 정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주휴·월차 수당과 부대경비가 별도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도장, 구직등록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오는 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상생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사각지대를 메우는 소중한 연결 고리”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어르신 요실금 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정읍시가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비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조기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을 가진 주민이다.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중 발생한 관련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이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분증과 자격 증빙서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무더위 쉼터·경로당 집중 점검…폭염 대응 총력

익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어르신 안전을 위해 무더위 쉼터 집중 점검과 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701개소에 대해 냉방기기와 편의시설 작동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고장 시설은 즉시 수리·교체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기존 402개소였던 무더위 쉼터를 701개소로 확대 운영해 고령층 안전망을 강화했으며, 노인일자리 야외근무를 전면 중단하는 등 체감도 높은 폭염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8~29일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이 직접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며 이용자 의견을 청취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 강소특구, 2년 연속 ‘최우수’

## 선순환 혁신 시스템 구축 지역 혁신 성공 모델 제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전국 14개 특구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전국적인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혔다.

이번 평가는 △특구 사업화 성과 △임주 기관 만족도 △특구 발전 지지체 기여도 등 3개 부문과 6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첨단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 혁신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위기 속에서 찾은 미래의 길, 강소특구

군산 강소특구 지정 배경에는 산업 위기를 마주한 지역의 절박함이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R&D 기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첨단기술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강소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특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차별화된 전략,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 가속화

군산 강소특구는 기업의 성장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부터 창업교육,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기업의 성장, 재투자자를 이끄는 지

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강소특구 지정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개별로 움직이던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강소특구를 매개로 기업 육성을 위한 유기적인 선순환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학생 교육을 맡던 대학은 기업 현장에 실제 필요한 인력양성을, 기관의 연구를 추구하던 연구기관은 기업 수요기업을 개발을, 기업은 기술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을,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특화분야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강소특구의 성과는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하나 돼 지역 산업 생태계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한 결과”라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업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미래 신산업 전환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 군산시-민주당, 국비 확보 전략 논의

##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현안 대응 전략 마련

군산시와 민주당이 지난 1일 군산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정책 기조와 예산 편성 방향에 대응하고,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긴밀히 협의해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및 의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군산시는 기재부 단계에서 중점 대응 중인 사업으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 센터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군산시와 민주당이 지난 1일 군산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건설 등을 건의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국정 기조를 전면 재설계하는 중대한 전환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행정이 하나가 돼 군산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기준이 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익산 전통시장,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 1인당 2만원 한도 최대 30% 돌려받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익산 전통시장에서 더 알뜰한 장보기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단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9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3곳에서 ‘여름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농축산물)’를 진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비롯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다.

행사 기간 중앙시장, 매일시장, 서동시장 내 지정된 판매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으로, 1인당 최대 환급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 부스는 서동시장 주차장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련돼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당일 구매 영수증만 인정된다.

시는 이번 행사가 현재 진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늘리기 위해 환급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국내산 농축산물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정읍시,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능력 인정받아

## 모든 항목 ‘만족’ 판정 4년 연속 우수 성적 거둬

정읍시가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4년 연속 세계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산하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한 ‘2025년 식품분야 국제숙련도 평가(FAPAS)’에 참가해 모든 항목에서 ‘만족’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ce Assessment Schemed)는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과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이 참가해 잔류농약과 수질 등 10여 개 분야의 분석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받는 공신력 있는 국제 대회다.

이번 평가에는 66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토마토 퓨레에 함유된 10개 농약 성분을 분석해 모두 Z-score ±2 이하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분석의 정밀성과 신뢰도를 다시 한 번 국제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체계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안전분석실은 출하 전 생산단계 농산물 609건을 분석

해, 안전성 확보는 물론 출하시기 조정과 농약안전사용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 분석을 원하는 농업인은 출하 7일 전, 시료(1~3kg)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제2경사내 농업기술센터 안전분석실에 신청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제숙련도 평가를 통해 정읍의 분석 능력이 세계적으로 검증됐다”며 “앞으로도 정읍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특별한 여름여행 열차 운영

시티투어·미식 여행 펼쳐져

익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형 시티투어’와 ‘여름밤 미식 여행 열차’를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먼저,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운영되는 시티투어 ‘여름방학 여기어때?’는 가족 맞춤형 코스로 운행된다. 익산역에서 출발해 왕궁보석데마관광지를 거쳐 왕궁포레스트, 미륵사지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본다.

시티투어 요금은 중식과 입장료, 버스비를 포함해 1인당 1만 8,000원이며, 참여 신청은 익산시 누리집 초기화면에 있는 ‘문화·관광 바로가기’에서 가능하다.

8월 1일부터 1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는 ‘오감만족 야시장’과 연계한 열차관광상품이 운영된다.

오감만족 야시장은 익산역 인근 중앙시장에서 열리는 행사로,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오는 30일에는 특별기획 상품인 ‘익산에 반하다 시즌2- 치맥열차’가 운행된다.

이번 열차여행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용마리교을’에서의 시원한 물놀이와 오는 29~30일 중앙동 일대에서 열리는 ‘치맥페스티벌’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시원한 음료와 치킨, 버스킹 공연 등 도심 속 야간축제를 통해 색다른 익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여름 여행 상품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축제와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자원순환과 감지현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도내 시·군의 우수한 세외수입 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공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도모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공공소각장)에서 발생한 ‘지자체 귀속분 신재생 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판매를 숨겨진 세외수입원 발굴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이번 발표대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시는 작년 신재생에너지



김지현 주무관

공급인증서 판매를 통해 11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으며, 앞으로도 매년 3억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자립과 분권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신규 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세원 발굴과 업무 역량 강화에 힘써 지방재정 확충에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정읍시, 국가유공자 26가구 주거환경 개선

정읍시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따뜻한 예우를 실천하고 있다.

시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낡고 불편한 주택 내부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유공자 가정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고령 유공자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진

행된 신청 접수에는 총 108명이 참여했다. 시는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 유형,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26가구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14가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12가구도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테니스장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익산시는 오늘부터 마동테니스공원과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하나의 예약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테니스장이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돼 이용자들이 예약 현황을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마동테니스공원이 시 직영체제로 전환됨과 맞물려, 기존에 시에서 관리하던 중앙·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까지 통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테니스장 예약은 ‘익산시 테니스 통합예약시스템 (www.iksantennis.com)’에서 원하는 시설과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시설별 예약 현황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환경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순창군, 농촌기본소득 전국 첫 시범 도전

## 국정위·道에 추진 의지 전달 전 군민 연100만원 지급 ‘기본사회팀 운영’ 기반 강조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인 ‘기본소득’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영일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및 경제 2분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 추진 당위성과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군이 제안한 ‘농촌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순창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전북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아동행복수당, 청년중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순창군은 국정기획위와 전북도에 농촌기본소득 추진 의지를 전했다. <사진=순창군>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행정 경험과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농촌기본소득’ 추진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열악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행 모델로서, 순창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군은 조례 제정과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증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춘 준비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실내테니스장 시공사 선정 기준 마련 시급

### 과열 경쟁 속 투명성 확보해야 ‘기준두고블라인드 심사’목소리

완주군 실내테니스장 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관련업체들의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완벽한 공사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청 옆 전체 테니스장 16면 가운데 40억여원을 들여 4개면을 실내테니스장으로 연밀게 발주할 예정이다.

실내테니스장 공사 가운데 20억~25억 여원이 소요되는 ‘막구조’ 시공과 관련 전국 각지의 10여개 이상 관련업체가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부실시공 방지와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의 성능인증 여부, 시공실적 등의 기준을 마

련해 놓고 업체명을 가린채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거 전북지역에서의 시공실적을 바탕으로 이미 검증된 업체, 완주군 실내테니스장과 규모가 비슷한 테니스장 시공 여부 등을 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대형 체육시설은 물론 국가대표 선수촌 등의 시공 경험을 통한 난이도가 높은 실내테니스장의 완벽 시공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표준화 기구 (ISO)의 안전, 품질, 환경 인증 등을 갖춘 업체 선정으로 시공후 유지, 보존관리에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 막구조 전문가는 “최근 막구조물 시공은 겨울철 폭설 또는 습설시 무너

지지 않도록 눈 자동처리 장치를 추가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지닌 우수한 업체 선정은 지자체의 의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조달 우선 구매 대상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해외에 진출한 G-PASS 기업 등도 선정기준 마련시 참고돼야 할 것이 제기되고 있다.

성능이나 시공실적 등 안전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가격이 낮다고만 해서 선정돼서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사 예정인 실내테니스장 공사가 잡음 없이 전문성 있는 업체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시공실적, 능력 등 제한경쟁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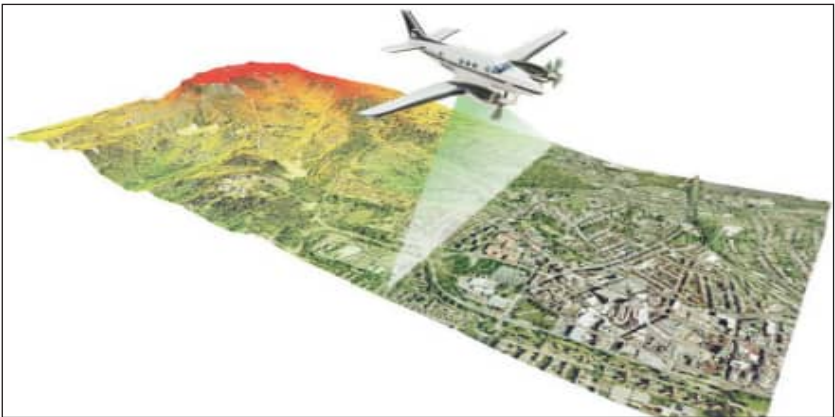
## 남원시, ‘고정밀 전자지도 챌린지’ 공모 최종 선정

### 산림재해 대응 ‘스마트 전환’ 20억 투입 고정밀 데이터 구축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공모사업’이란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및 제작과 아울러 고정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지자체에서 수립해 제안하는 경쟁형 공모사업이다.

남원시는 2024년부터 2년 연속으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왔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에 착안해 이번 챌린지 공모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일원



남원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항공라이다 촬영 방식. <사진=남원시>

의 산림재해 문제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인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원시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기획력, 실행가능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고, 이를 통

해 확보한 국비는 2026년에 사업이 추진되며 총 20억원을 투입해 수치지형도 제작과 산림재해 통합관리를 위한 고정밀 데이터 구축으로 스마트 산림재해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본 사업이 농촌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2회 연속 지정 쾌거

#### 2028년까지 자격 유지 정책 유지·공모 지속 참여

완주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25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

이번 평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전국 46개 도 산하 군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완주군은 지난 2022년 1주기 재지정에 이어 2회 연속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자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평생학습 정책 추진은 물론, 향후 관련 공모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

여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평생학습 시설 확충 노력 △정보망 구축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등 사업 추진체계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민 수요에 기반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대학과의 연계 협력,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수 사례 발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적 기여도도 인정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재지정은 군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광한루가 전북 야행명소 10선에 선정됐다.

<사진=남원시>

### 남원 광한루 ‘전북 야행명소 10선’ 선정

#### 시, 광한루 야간 콘텐츠 강화 냉방시설 마련 열대야 대비

누정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남원 광한루가 ‘전북 야행명소 10선’에 선정됐다.

이에 발맞춰 남원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남원 여름, 야행 맛집에서 즐기세요’라는 테마 아래 광한루원 일대의 야간 콘텐츠를 강화해 여행객 맞이에 나섰다.

시는 여름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달빛정원 감성야행’을 운영하고 있다. 광한루원 일대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

으며, 광한루원 내에는 관람형 콘텐츠도 함께 배치했다.

광한루원과 주요 관광지에는 ‘감동 안내소’를 설치해 포토존 안내, 맞춤형 관광지 추천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광한루원 해설사의 집에는 냉방 쉼터, 선풍기 벤치, 휴대폰 충전존 등을 마련해 무더위 속에서도 여행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남원시는 소방서, 전기안전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숙박시설과 야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남원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국제 잔류농약 숙련도 2년 연속 ‘우수’

#### 모든 항목 ‘만족’ 신뢰도 입증

완주군이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산하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국제 잔류농약 분야 숙련도 평가(FAPAS)’에 2년 연속 참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잔류농약 분석 능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공공 및 민간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역량을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숙련도 평가로, 참가 기관의 분석 정밀도와 정확도를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66개 분석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토마토 퓨레(Tomato Puree)에 포함된 10

종의 농약 성분에 대한 정량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모든 항목에서 표준점수(z-score) ±2 이내를 기록해 ‘만족(Satisfactory)’ 평가를 받았다.

군은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GC-MS/MS와 LC-MS/MS를 각각 두 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 고장 시에도 분석 업무를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노후된 잔류농약 분석 장비를 교체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MS)를 추가로 도입해 분석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 장비는 기존보다 저농도 농약 성분도 검출 가능해 업무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산악지역 국가지점번호판 11개 신규 설치

#### 신속한 위치 확인…안전 강화

순창군이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 풍악산, 용결산, 설산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11개를 신규 설치했다.

최근 등산객 증가와 함께 산악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탐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위치 확인이 가능한 구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한글 2글자와 숫

자 8자리로 구성된 격자형 위치표시 체계로,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사고 발생 시 119나 112에 해당 번호를 전달하면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즉시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산악지역 내 위치 신고의 정확성과 속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청소년수련관

#### 중국 대련국제학교와 문화 교류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이 국제문화 교류 프로그램인 ‘꿈을 잇는 만남, 대련에서 완주까지’를 최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 재학생과 완주군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국제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대련한국국제학교 12학년 이민주 학생과 영어교사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완주군 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3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해외 유학 생활과 다양한 진로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며 국제적 감각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미래 진로 설계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 지역 청소년 간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이해와 우정 증진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기완 아동친화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순창군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제9회 순창강천산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군은 대회 기간 중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 △식자재 및 음식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으로, 식품위생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식품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식중독 없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찾아가는 칼날연마’로 주민 안전·생활편의 증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초고령 사회인 남원시의 현실과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지난달부터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칼날연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날 운봉읍을 시작으로 총 9개 읍면, 50여개 마을에서 1,200여개의 주방용 식도 등 칼날을 연마했으며, 8월에는 보절면으로 시작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이 직접 칼을 연마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체에 해로운 금속가루(알루미늄·납 등)를 최소화해 주민들이 중금속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허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칼날연마사업은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전북은행, 남원 취약계층에 폭염대비 시원키트 전달

남원시는 지난 1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에서 시원(COOL) 키트 60상자(한가액 300만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전상의 전북은행 부행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지원된 쿨키트는 여름용 휴겹이불, 선풍기, 팔토시, 쿨타올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전상의 부행장은 “여름철 폭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 7명 몽골 파견

### 이미용풍산아트사진등지원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앞장서 온 '전주시 나눔 천사 세계를 품다' 전문봉사단이 몽골을 찾아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8월 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전문봉사단 7명이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몽골 비오콥비나트 지역을 찾은 해외 봉사단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미용과 풍산아트, 사진촬영, 종이 접기,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현지인에게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이미용 봉사활동에서 커트와 원하는 색상의 머리염색까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작은 스튜디오 포토 부스에서 사진 촬영 봉사활동으로 즐거운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해 마을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소를 제공했다.

최이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글로벌 나눔 정신이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문화를 알리며 지속적인 교류와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전문봉사단 7명이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전주시자원봉사센터>



### 전주 팔복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커피 20잔 기부

팔복동주민센터(동장 유소현)에 2025. 8. 1.(금),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시원한 커피 20잔이 배달돼 무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선물이 됐다.

이번 기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해 진행된 것으로, 기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무더위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완주-전주 통합운동 등으로 주민들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

/정혜민 기자

## 완주군, 6·25 참전유공자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

### 故 장남철 상병 공적 기려

완주군이 지난 1일 6·25전쟁 참전 유공자인 故 장남철 상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전수식은 완주군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례회의에서 진행됐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전해 특별히 뛰어난 공을 세운 이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故 장남철 상병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인제지구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이후 70

여 년 만에 조국 수호를 위한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훈장은 유족인 동생 장철례 씨에게 전달됐다.

장 씨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오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가와 완주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익산 함열읍 주민자치회, 한부모 가정에 나눔 꾸러미 전달

익산시 함열읍에서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시원한 나눔 꾸러미가 전달됐다.

함열읍은 주민자치회(회장 박종철)가 한부모 가족 57가정에 '쿨(COOL)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람나눔행사를 가졌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꾸러미는 한부모 가정이 보다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쿨스카프, 휴대용 선풍기 등 총 4종의 여름나기 용품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 한서요양병원, 국가유공자에 건강 꾸러미 물품 지원

정읍시 상교동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건강 증진을 위해 'ही어로를 위한 건강 꾸러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훈수당을 수급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 21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각 가구에는 5만원 상당의 구급약품이 담긴 건강 꾸러미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 꾸러미는 한서요양병원(원장 이용호)에서 기부한 물품으로 마련됐다.

/정읍=김정민 기자

###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충남 예산군 수해복구 봉사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 일대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하우스 농작물 침수와 토사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와 현장 중심의 협업을 통해 인력과 장비를 준비했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과 연대의 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동 이사장은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도움이 필요한 현장 어디든 발 빠르게 달려가 따뜻한 손길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남원 '윤슬' 음식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협약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일신)는 지난달 31일 한식전문점 윤슬(대표 박윤경)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윤슬(대표 박윤경)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밑거름을 지원함으로써,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

도록 돕는다. 아울러, 오는 12일 예정된 하반기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전원에게도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응원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윤슬 대표 박윤경은 “작은 나눔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익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 취약계층에 성금 100만 원 기탁

익산의 어업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익산시는 익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윤승례)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승례 위원장은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어 회원들과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 이렇게 예방하세요 !





〈一事一言〉



주한미군 역할 변경은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회(1)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재건(MAGA)’을 내세우며 국방전략의 전면 재조정예 나왔다. 3월 말 ‘장정국방전략지침’에서 미 본토 방어와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러시아·이란·북한의 위협은 동맹국이 담당하도록 했다. 8월 말까지 작성돼 공개될 예정인 국방전략보고서(NDS)에서는 △미 본토방어 강화, △중국과의 군사충돌 대비, △동맹 및 파트너의 역할 확대 요구, △미 방위산업 혁신, △미 지역통합 전투사령부 조정·개편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전략보고서(NDS)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쟁점은 동맹의 부담 증대와 역할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 통합전투사령부의 조정·개편이다.

동맹의 부담 증대는 지난 6월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처럼 한국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할 것, 그리고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 가량 증액된 100억 달러(13조 7000억 원)를 부담하라는 미국 측 요구로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사령부 조정·재편은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 및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유엔사 개편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위비분담금특별법정(SMA)은 2026년에 적용되기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유효하다. 한미 SMA는 미국에선 행정협정이지만

한국에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다.

문제는 미국이 기존 SMA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협상팀은 50억 달러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기존 3개 항목(한국인 근로자 임금, 비전투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 ‘전략자산 운용비’ 항목의 추가를 요구했다. 한미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장기화하다가 미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협상은 우리 측 안에 가깝게 타결되었다.

미국은 아직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만약 새롭게 SMA 협상이 진행된다면, 미국은 2023년 4월 26일 ‘한미 위상탄선언’에서 약속한 핵전략자산 방문의 정례화에 따라 핵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의 한국 전개비용을 포함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일은 SMA 협상에서 ‘미·일 공동훈련에 사용되는 기자재 조달비’를 이미 포함시켰으며, 신규협상에서 미국은 ‘미 합정의 일본 내 정비비용’을 추가로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SMA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한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22일 웰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해 괌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방위비분

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용이든 해외미군재편 차원이든 주한미군 감축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감축론의 배경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경향이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은 독일이 국방비를 GDP 2% 이하로 지출하는 데 불만을 토로하며 주독 미군을 34,500명에서 25,000명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백지화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10월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2019~2022 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28,500명으로 유지하며, 그 이하로 줄이면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미 의회가 재의결해 통과시켰다. 그 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 가능성이 사라지자 2022~2025 회계년도 NDAA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28,500명 이하로 줄이면 예산 사용 불가’라는 항목을 삭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으로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자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미군사령부를 조정·재편하는 한편, 동맹국에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다시 생긴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미 상·하원은 또다시 미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년도 NDAA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 MAGA주의 자들과는 달리 현장의 미군 사령관들은 동맹관계를 중시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4.10)에서 새뮤얼 파파로 인태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이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북한 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 재정 안정성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의 분석에 따르면, 전북도는 결보기에는 세입과 세출이 증가하며 잉여금 또한 늘어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채 급증과 예산 집행 미흡, 구조적 재정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3.46% 증가한 9조 6천256억 원, 총세출은 3.07% 증가한 9조 3천21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3천40억원으로 17.21% 증가했다.

일견 건전한 재정 운용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잉여금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정반대다. 사고이월액이 전년대보다 무려 115.99%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57.77%나 늘어났다. 이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사업 준비 부족, 예산 과다 계상, 집행 지연 등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부채 증가 속도다. 2024년 말 기준 전북도 총부채는 9천9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2%나 급증했다.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부채는 1조4천451억 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전북도가 2024년 회계연도에 들어서며 재정 적자 상태에 돌입했다는 사실이다. 2023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던 재정은 2024년 1천 13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5.04%나 악화됐다.

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닌, 수익 구조

의 취약성과 지출 구조의 경직성이라는 두 가지 근본 원인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자체 수입은 전체 세입의 23.23%에 불과한 반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64.73%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중앙의 존형 재정 구조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은 전체 세출의 34.46%를 차지하며 2천 723억 원이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예산은 11.66% 줄었다. 이는 단기 지출 중심의 복지 재정 운용에 치우쳤음을 보여준다.

전북도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재정 운용을 지속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계획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고이월과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사업 집행력 미비와 계획 부실의 결과이며, 이 역시 도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또한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세 수입 다변화와 세외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이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놓친 자치단체에 ‘특별’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문화재열전



순창 삼인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생활유적
-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271번지

▲오늘의시

8월 / 김 사 인

긴 머리 가시내를 하나 뒤에 싣고 말이지  
아마하 150  
부디당 들이밟으며 쌍,  
탐동 바닷가나 한 바탕 내달렸으면 삶은  
거지

시인 약력 :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대학 시절 대학신문에 ‘戀詩’를 위한 이미지 연습, ‘밤 지내기’ 등의 시를 발표

용두암 포구쯤 잠깐 내려 저 파런 바다  
밀도 끝도 없이 절렁거리는  
저 백치 같은 바다한테  
침이나 한번 카악 굶어 뱉어주고 말이지  
다시 가시내를 싣고

한 청년 문사였다.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시인으로, 평론가로 등단하고 민중문화 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했다. ‘한국문학의 현단계’에 평론 ‘지금

새로 난 해안도로 쪽으로  
부다당 부다다다당  
내리쫓고 싶은 거지  
강소주 나발 볼듯  
총알 같은 별을 뚫고 말이지 쌍,

이곳에서의 시’를 발표했다. 조정환, 박노해와 함께 ‘노동해방문학’을 창간하고 발행인이 됐다. 1987년 첫 시집 ‘밤에 쓰는 편지’를 펴냈다.

전북타임스신문은 독자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 ◇광고문의 282-9601
- ◇기사제보 282-9600
- ◇신문구독 283-8800





심덕섭호 3년,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 열었다

# 철도·도로연결 앞당기고, 100년 먹거리 만들었다



심덕섭 군수의 희망찬 고창미래 만들기에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 고창에서 86.29%(전북 14개 시·군 중 2위)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외교안보 분과에는 고창 아산 출신 정대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발탁돼 활동 중이다. 지난 6월 23일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고창 대산 출신 안규백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 ▲서해안철도 연결, 대통령 지역공약 1번 반영

고창군의 숙원 '서해안철도 연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창군 공약 1번에 반영됐다. 5년 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점선으로, 장기적 검토과제로만 남아 있던 것을 올 연말께 확정예정인 '제5차 국가계획'에는 실선으로 이어 실 제 사업착수 단계로 끌어 내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실상 수면 아래 있던 서해안 철도의 국가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주도해 왔다. 지난해 11월 서해안 철도가 지날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한데 모아 기자회견을 했

고, 군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각종 퍼포먼스를 통해 주민의 열망을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포럼에는 탄핵국면 속에서도 국회의원 15명, 전북·전남 도지사 2명, 시장·군수 6명 등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로 성료됐다. 논리와 기세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연말께 발표될 국가계획은 물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군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노을대교, 총 사업비 증액 성공 "2030년 전 개통 청신호"

## 서해안철도 연결, 대통령 지역공약 1번 반영 노을대교, 총 사업비 증액 성공

심덕섭 고창군수와 지역정치권의 끈질긴 설득 끝에 '노을대교'의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2030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창군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노을대교 총사업비로 4217억원을 통보받았다. 이는 기존보다 400억원 정도를 증액한 것으로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등 지역정치권의 노력이 빛났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해상대교 제안공모에 따른 세부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할 전체 8.86km 길이의 다리를 말한다. 완공 땀 70km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단, 7.5km로 줄어든다. 다리가 놓이면 기존 한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를 단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 ▲고창해안가, 대한민국 대표 복합 리조트 들어선다

최근 고창 해안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수십 년째 꿈꿔 왔던 정부 부처가 움직이며 길을 터줬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관련부서 직원들이 수차례 기획재정부를 찾아 설득한 끝에 최근 명사십리 한 중앙에 있는 10만5344㎡를 사들이는데 성공했다. 국방부와 한국전력공사 역시 큰 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부지 활용과 매각에 동의하며 세부절차를 조율 중이다.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해안가에 대규모 미개발 부지가 있다는 소문은 국내 레저기업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 2023년 7월30일 국내 중견기업 4개사(LIG시스템, ㈜P&K INC, 영풍제약, 서울경제TV)이 고창군과 MOU를 맺고 명사십리 관광개발사업에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업체들은 고창 명사십리 일대에 리조트와 숙박, 스

포츠, 휴양·레저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내 리조트업계 1위인 ㈜모나오피딩 명사십리 주변의 땅을 고창군으로부터 100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모나오피딩은 2027년까지 3500억원을 들여 중대형급 휴양형 콘도미니엄 471실을 비롯해 7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변 염전부지를 활용해 18홀 대중형 골프장을 짓고, 주변에는 고창군이 추진하는 국제가누슬라럼 경기장, 생태갯벌플랫폼, 세계자연유산센터 등 다양한 레저·관광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 ▲김치특화 산업 도시로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본격화"

김치 속재료를 배추와 무, 마늘, 생강의 전국 최대 생산지가 바로 고창이다. 지금까지는 원료로만 거래가 이뤄지면서 김장철 가격변동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가격폭락으로 애써 지은 배추밭을 갈아엎는 경우도 많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를 타계한 방안으로 '사시사철 김치원료 산업단지'를 꺼내들

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 320억원을 투입해 저온저장고 50동과 절임가공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중이고, 6월10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선도지역에도 최종 선정돼 사업비 5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사업비로는 기업육성을 위한 김치 원료산업 기반조성, 김치가공업체 육성, 김치소재 산업 조성, 배추수확 농기계 자동화 성능개선사업, 김치 부산물의 우수성 규명 연구 등이 이뤄진다. 또 김치수출 1위 기업인 대산 종갓집 김치와 협약도 체결돼 김치 저장 기술과 절임배추 판매망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3년여의 도전은 혁신적이었고,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새희망을 꿈꾸게 했다"며 "남은 임기에는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웠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고, 군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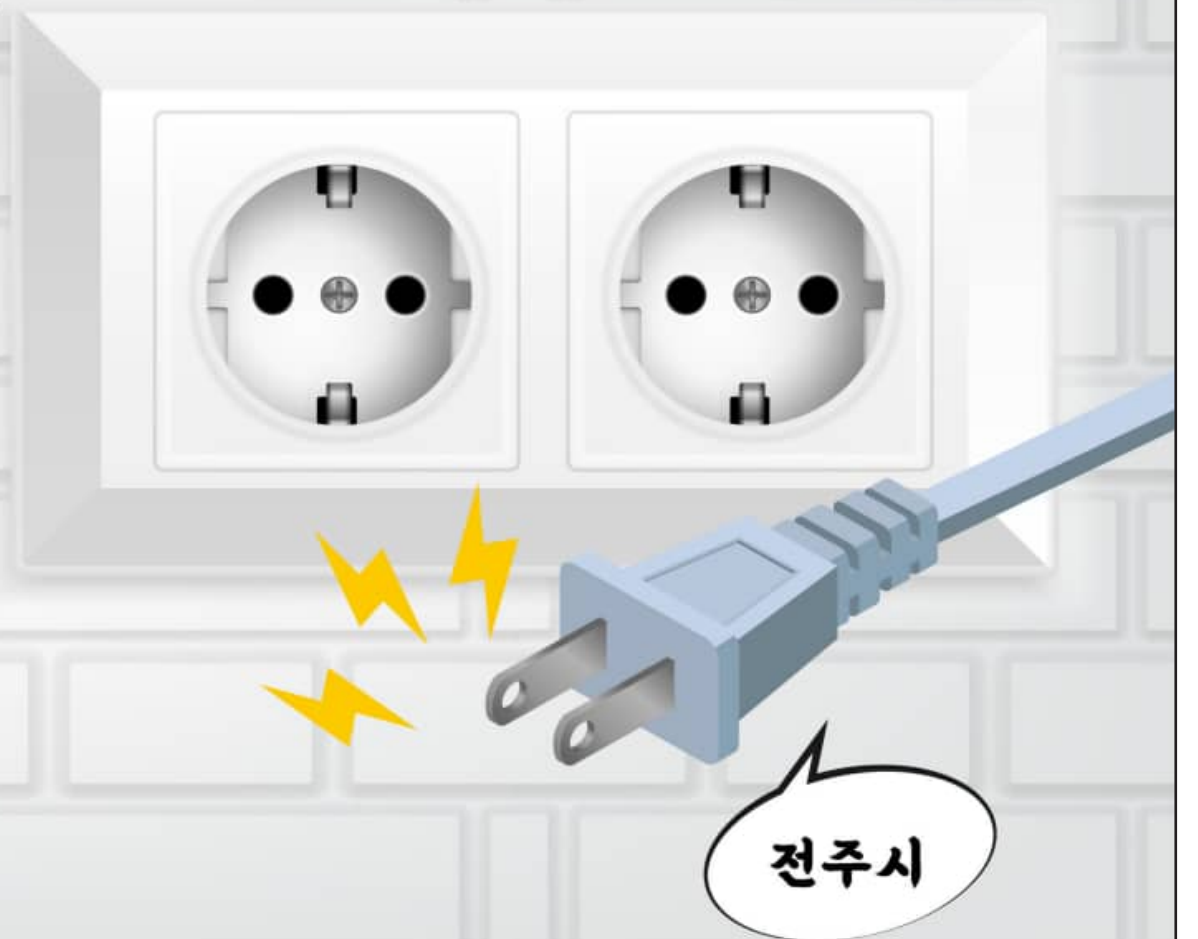
맞지 않는데,  
억지로 끼워넣는다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맞지 않으면, 멈춰야 합니다  
완주는 완주답게! 전주는 전주답게!

완주군



완주군의회  
Wanju County Council



전주시